

한미글로벌 20년사

건설선진화를 향한 열정의 도전

특집



1996 _ 2016

Contents

특집-1. 한미글로벌 대표 프로젝트 20선

1.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01
2.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I'Park, We've the Zenith, Busan LCT)	02
3. 서울 스퀘어 리모델링	03
4. 국립생태원	04
5. Jabal Omar Development	05
6. 이라크 Khabat 중유화력 발전소	06
7. 롯데월드타워	07
8.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08
9. 센텀시티 신세계 UEC	09
10. 알펜시아 리조트	10
11. 부산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	11
12. 삼성전자 R3, R4, R5	12
13. 북경 포스코 센터	13
14. 리조트 월드 제주	14
15.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1,2	15
16. 제주항공우주박물관	16
17. 서울 복합 물류단지	17
18.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18
19.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19
20. 송도 컨벤시아	20

특집-2. 한미글로벌 이야기

1. Best Project Interview _ 롯데월드타워	21
2. Excellent People Interview _ 박서영 상무	23
3. 퇴직구성원 Interview _ 황규찬 이사 (재직기간 : 1996~2013)	25
4. 장기 근속 구성원 Interview _ 유현열 이사	27
5. 경력 사원 Interview _ 김장수 부장	34
6. 여성 구성원 Interview _ 박경희 부장	38
7. 공채 사원 Interview _ 공채 1기 곽동원 과장 / 남하나 과장	40
8. 대한민국 젊은이가 바라 본 한미글로벌	42

특집-3. 사진과 기사로 본 HG 20년

1.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	46
2. 사회공헌활동 사진전	54
3. 행복경영활동 사진전	56
4. 산행 및 체육대회	58
5. 언론에 비친 한미글로벌_사업	60
6. 언론에 비친 한미글로벌_회사성장	62
7. 언론에 비친 한미글로벌_조직문화	65

특집-1. 한미글로벌 대표 프로젝트 20선

Project 1. 서울 월드컵 주 경기장 [2002 FIFA World Cup Main Stadium]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발주처	서울특별시
규모	연면적 : 166,503m ² (66,704석)	HG서비스	CM+CS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뛰어난 조형미와 기능성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 세계 10대 축구전용 경기장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에서 공공사업으로는 최초(1998년)로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도입된 프로젝트로 한미글로벌은 전문화된 관리기법을 통해 계획 공기를 4개 월 단축하여 2001년 11월 준공함으로써 2002년 서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한 부분을 담당했다. 당시 국가적 난제로 대두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해결책으로 국내에 CM 도입이 당겨진 것은 국내 건설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개최이후 운영단계까지 고려하여 수익시설 도입을 제안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전국 월드컵 경기장 중 유일하게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2002년 11월 체육포장을 수상하였다.

Project 2.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I'Park + We've the Zenith + Busan L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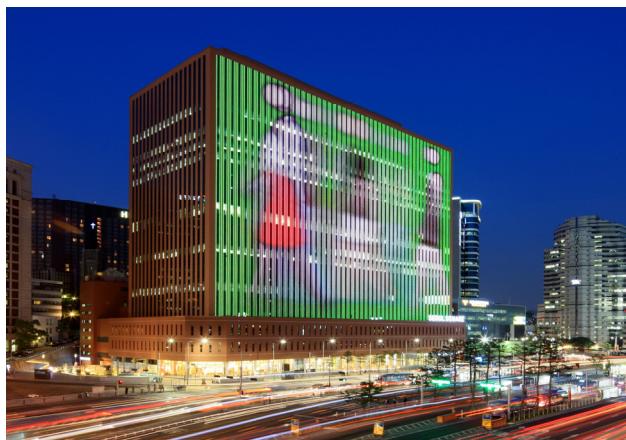
위치	아이파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위브더제니스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엘시티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발주처	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 위브더제니스 : 두산건설 엘시티 : 포스코건설
규모	아이파크 : 511,805m ² (72층 / 292m) 위브더제니스 : 572,534m ² (80층 / 301m) 엘시티(공사중) : 661,138m ² (101층 / 411m)	HG서비스	초고층 CM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 관광특구이며, 세계의 하늘이 우러르는 국제도시 부산 해운대Marine City에 건설된 아이파크, 위브 더 제니스와 공사중인 엘시티(2019년 완공 예정)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건설사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공 기술력과 한미글로벌의 초고층 건축분야에서 집적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을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초고층 요소기술에 대한 Consulting을 수반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초고층 주거건축물을 탄생시켰다. 한미글로벌은 외국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해(아이파크 : Daniel Libeskind / 위브 더 제니스 : DeStefano Partner / 엘시티 : SOM) 첨단 디자인을 구현해 냈으로서 해운대 지역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운대 지역의 50층 이상 초고층 프로젝트의 70% 이상은 한미글로벌의 CM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Project 3. 서울스퀘어 리모델링 [Seoul Square Remodeling]

위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5가	발주처	KRI PFV(Morgan Stanley)
규모	연면적 ; 132,659m ²	HG서비스	CM+CS / CM at Risk



서울스퀘어(舊 대우센터빌딩)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난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프라임급 오피스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물리적 성능은 물론 사회적 성능까지 향상시킨 프로젝트다.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신축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서울스퀘어의 경우 기존 도면이 상당부분 유실되어 기존 건축물을 도면화 하는 것부터 재실 상태의 공사 진행, 도심 재개발구역내 리모델링에 따른 인허가 문제, 신축과는 다른 공사비 산정 조건 등 많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CM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고객의 대리인이자 조정자인 CM은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사업의 목표를 이해시키고 CM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미글로벌은 일부 대수선공사를 CM at Risk 방식으로 수주하여 시공함으로써 발주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전면 Facade에 “Media Art” 설치공사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서울 도심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으며 서울 도시경관을 한 차원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roject 4. 국립생태원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발주처	환경부
규모	연면적 ; 58,534m ²	HG서비스	CM+CS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고품격 생태 연구·전시·교육의 공간이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생태연구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건립되었다.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발주계약 방식 (Turn-key, 최저가 입찰, 대행위탁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 복합 프로젝트로 한미글로벌은 각 사업간 통합 관리를 통해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효과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었다. 대표적 건축물인 초대형 온실공간인 “에코리움”은 현장 및 문헌조사를 거쳐 선정된 식물 1,900여 종, 동물 230여 종이 21,000m²가 넘는 공간에 함께 전시되어 있으며, 기후대별 생태계를 최대한 재현함으로써 기후와 생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한미글로벌은 각기 다른 환경의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관리를 통해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대내외 찬사를 받았다. 또한 적극적인 원가관리 활동을 통해 390억원을 절감함으로써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Project 5. Jabal Omar Development

위치	Mekkah, Kingdom of Saudi Arabia	발주처	Jabal Omar Development Company
규모	연면적 ; 1,952,000m ²	HG서비스	Project Monitoring Service / LTA



자발 오마르 개발 프로젝트는 메카의 알하람 모스크(Al Haram Mosque)를 방문하는 순례자를 수용 위한 대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이다. 230,000m² 규모의 부지에 45,00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다용도 주거시설과 호텔 등이 38개의 타워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 6조원이 투입되어 2017년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에서 한미글로벌은 Project Monitoring Service와 LTA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2010년 8월부터 프로젝트 Phase 1의 사업 인허가, 각종 계약, 프로젝트 Risk, 프로젝트 원가 및 사업 일정 계획,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분석/평가하는 등의 투자자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고객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Phase 2 사업을 수의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한미글로벌은 향후 Phase 3/4/5의 프로젝트도 수주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과와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Project 6. 이라크 Khabat 중유화력발전소

[Iraq Khabat 300MW Thermal Power Plant Unit 1&2 and Bazyan 400kV Substation Project]

위치	Erbil, Iraq (Kurdish Region)	발주처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전력청
용량	300MW(150MW × 2기) Oil-fired & 400kV Substation	HG서비스	Owner's Engineering Service (OES) for Design Review + PM/CM



카밧트 중유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2008년 9월 이라크내 쿠르드 자치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유전개발권과 SOC 건설사업의 상호 제공에 대한 Package Deal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지역내 8개 광구에 대한 유전개발권을 확보하고 쿠르드 자치정부의 천연자원부와 21억불 상당의 SOC 건설사업 지원을 합의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2012년 양국간 합의하에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EPC 계약이 체결되었고 한미글로벌은 중동에서 활발한 Oil & Gas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독일의 아이엘에프 (ILF Consulting Engineering)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OES(Owner's Engineering Service)사업을 수주하였다. 2015년 11월 29일 주공정중의 하나인 보일러 수압시험(Hydro Test)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2018년 준공에 한 걸음 다가섰으며 발주자에게 인수하는 그 날까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Project 7. 롯데월드타워 [Lotte World Tower]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	발주처	롯데물산
규모	연면적 : 726,524m ² 층 수 : 123층 (555m)	HG서비스	CM + CS (초고층)



롯데월드타워는 국내 최초로 100층이 넘는 초고층 프로젝트로서 2016년 말 완공 예정인 랜드마크 사업이다. 화강석 암반에 4,200톤의 철근과 80,000톤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투입된 매트 기초 위에 포디움(1~12F) 부분은 원스톱 라이프스타일 시설, 오피스(14~38F), 레지던스 오피스텔(42~71F), 호텔(76~101F), Private Office(105~114F), 전망대(117~123F)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는 진도 7.5 이상의 지진과 초속 128m/s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및 내풍 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안정성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계획설계 단계인 2010년 3월부터 투입되어 국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설계 완성도 확보 및 초고층 요소 기술에 대한 Design Review, 시공성 검토, 초고층 골조공사 Cycle 검토 등을 시행하여 초고층 건물의 안정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했다.

2011년 5월 27~29일까지 약 35시간 연속으로 매트기초 타설이 이루어진 이후 2016년 5월 현재 내부 미감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미글로벌은 대한민국의 초고층 역사를 새로이 쓰게 될 롯데슈퍼타워 CM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초고층 CM회사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Project 8.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Antarctic Jang Bogo Station]

위치	남극 테라노바만	발주처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규모	연면적 : 4,661m ²	HG서비스	CM + 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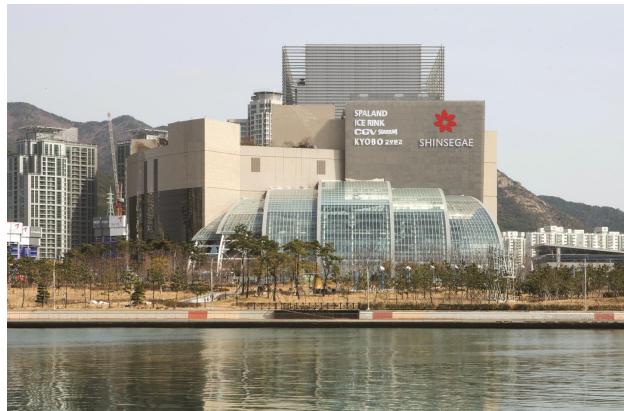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Northern Victoria Land) 테라노바만(Terra Nova Bay) 연안에 건설된 장보고 과학기지는 기상, 광물, 빙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한 곳으로, 대한민국이 2번째로 남극에 건설한 과학기지다. 건축 연면적 4,661m² 규모에 본관동(생활시설/종합연구동), 발전동, 정비동 등 건축물 16개동과 관측장비, 부대시설 24개소로 이루어졌다.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에서 한미글로벌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지 사전조사, 세종기지 월동대 자문을 통해 최적의 설계관리를 시행하였다. 특히 연 건설 가능일수가 3개월에 불과한 극지 환경에서 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은 100% 사전 제작되어 국내에서 가조립 Mock-up을 시행 한 후 현장에서 조립되어야 하기에 한미글로벌은 국내 가조립을 통한 필드테스트를 시행하여 보완 대책 마련하고 기초, 철골, 모듈러 및 외장 판넬 공종 간 조립 오판 사전 검토를 통해 1단계('12.11~'13.03) 및 2단계('13.11~'14.03)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글로벌은 험난한 극지 환경 조건하에서도 최적의 연구, 조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건설관리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과학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설사업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Project 9. 센텀시티 신세계 UEC[Centum City Shinsegae UEC]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발주처	(주)신세계
규모	연면적 : 293,907m ²	HG서비스	CM + CS / 기술지원 서비스



센텀시티 신세계 UEC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스파랜드, 아이스링크, Golf Range, 영화관, 스포츠 클럽 등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 프로젝트로 2006년 7월 착공하여 2009년 1월에 준공되었다. 문화와 휴식,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도심 속의 역동적인 휴양형 문화공간인 신세계 UEC는 지하 5층, 지상 14층, 연면적 293,907m² (88,906평)으로 2009년 세계 최대 규모의 판매 시설로 기네스 월드레코드에 오르는 등 신시가지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건축과 인테리어 설계에는 미국의 캘리슨(Callison), 이탈리아 클라우디오 실베스트린(Claudio Silvestrin)등이 참여하여 디자인 측면에서도 각광을 받은 프로젝트다.

한미글로벌은 프로젝트 통합관리시스템(PMIS)을 활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였다. 총 출력인원이 700,000명을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 Patrol 등을 통해 무재해 3,000,000시간을 달성하였고 국내건설의 1/3수준의 재해율로 프로젝트를 마쳤다. 또한 꾸준한 VE활동과 설계변경관리를 통해 총 공사비의 5% 이상인 253억 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하여 고객가치를 극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센텀시티 신세계 UEC 프로젝트는 상품 기획의 확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기보다 1개월을 단축해 2009년 1월 30일에 사용승인을 득함으로써 대형 Project 수행시 CM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Project 10. 알펜시아 리조트[Alpensia Resort]

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발주처	강원도개발공사
규모	부지면적 : 4,855,224m ²	HG서비스	CM + 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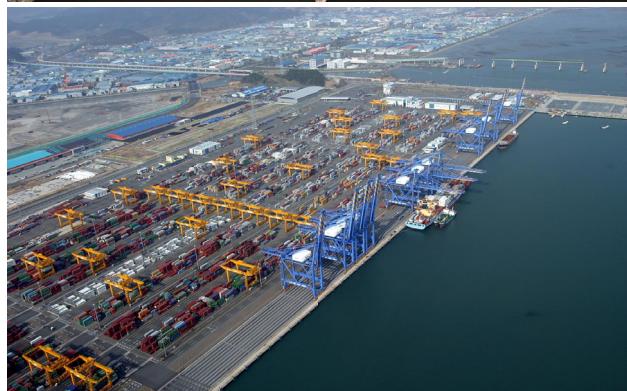
알펜시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신개념의 대규모 복합리조트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가 가능한 국제적 규모와 시설인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국내 최초로 리조트 단지에 특1급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배치된 “알펜시아 타운”, 50여 만평의 부지에 268세대의 럭셔리 하우스와 골프 코스로 구성된 “알펜시아 트룬 컨트리클럽”이 주요 시설이다.

한미글로벌은 2005년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해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개발 개념을 도출하고 고품격 리조트 건설관리를 추진하였다. 3개 공구로 분할 발주된 사업을 통합 관리를 통해 다양한 사업 참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쉽(Partnership)을 구축했다.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장기화된 사업기간동안 각종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두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Project 11. 부산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1,2-3,2-4단계)

[Busan New Port Container Terminal Phase 1, 2-3, 2-4]

위치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 진해시 용원동	발주처	부산신항만(주) / CH2M / 한국산업은행
규모	1단계: 3.2km / 2-3단계: 1.4km / 2-4단계: 1.05km	HG서비스	CM / LTA



부산 신항만 건설사업은 민간자본을 이용해 부족한 항만시설을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 Hub-Port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국내 최대의 민간자본(삼성그룹 + DP World + 한진그룹 + 현대건설)으로 추진된 SOC 국책사업으로 2000년 착공 이후 2006년 3개 선석 개장하였고 2011년에는 국내 단일 터미널로는 최초로 연간 300만 TEU 처리를 달성하였다.

한미글로벌은 1단계에서는 발주자 건설조직을 지원하는 설계검토, VE Report, 기술검토 등을 제공하는 CM업무를 수행하였고 2-3 단계는 CH2M으로부터 대주단 기술자문(LTA)용역을 완료했다. 2015년에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4 단계 LTA 용역을 수주해 2021년 까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토목 항만 분야에 대한 기술축적과 민간투자시설 사업관리 등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여 오만 조선소 Dry Dock 건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Project 12. 삼성전자 R3, R4, R5 [Samsung Electronics Digital City R3, R4, R5]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발주처	삼성전자(주)
규모	R3 : 133,000m ² / R4 : 215,210m ² R5 : 308,980m ²	HG서비스	CM + CS / 친환경 용역



2001년 휴대폰·통신 사업의 세계화를 목표로 건립된 삼성전자 “정보통신 연구소(R3)”에는 통신·멀티미디어 분야 연구시설이, 2005년 문을 연 “디지털미디어연구소(R4)”는 영상디스플레이 연구시설로 구성되었다. 2013년 준공된 모바일 연구소(R5)에는 휴대폰 R&D인력 1만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됐다.

한미글로벌은 3개 프로젝트의 CM 및 기타 친환경인증 용역 수행을 통해 고품질의 연구소를 완공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R3 →R4→R5로 연계하여 연구시설의 집적화 및 통합지하공간을 구축하였고 R5에서는 사업예산 증가 無원칙으로 준수하여 예산 증가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다. 최첨단 연구시설에 대한 한미글로벌의 차별화된 기술 역량은 고객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Project 13. 북경 포스코 센터[Beijing Posco Center]

위치	중국 북경 조양구 왕징지구	발주처	포스코 SPC
규모	168,811m ² (지하4층 / 지상 33층)	HG서비스	CM



북경 내 한국인 거주지역인 왕징지구에는 하늘로 높게 솟은 트윈 타워(Twin Tower)가 지역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넓은 아트리움과 포스코를 상징하는 스틸 트리(Steel Tree), 3천8백 개의 광섬유 갈대조명 등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볼거리 중의 하나다. 포스코의 힘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포스코센터는 한미글로벌이 공사 초기부터 준공단계까지 전 분야에 참여해 성공적인 완공을 이룬 프로젝트다. 한미글로벌은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 중국 업체와의 계약서에 반영하고 설계변경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해 초기 공사 예산 내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시공 VE를 통해 3% 가량의 공사비 절감 성과를 달성해 발주처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발주처와 CM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어려운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Project 14. 리조트월드제주[Resorts World Jeju]_舊 신화역사공원리조트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발주처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
규모	1,083,722m ²	HG서비스	CM + CS



리조트월드제주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 중 한 곳으로서 부지면적이 약 250만 m² 달한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며, 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한 7개의 테마 존에 20여 가지의 놀이기구를 갖춘 가족형 테마파크, 대규모 쇼핑 및 다이닝 시설 등이 계획된다. 또한, 프리미엄급 호텔 시설에는 2,0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제주 최초의 6성급 호텔, 럭셔리 스파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리조트월드제주의 호텔에는 국제회의나 전시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MICE 시설까지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카지노 시설, 문화시설,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편의 시설, 약 1,500여 개의 고급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서며, 이러한 모든 시설은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2014년 5월 기본설계단계부터 시설별 트렌드 분석을 통해 고품격 시설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리조트 개발의 기반을 구축했다. 2015년 2월 1단계 공사가 착공되어 체계적인 시공관리를 시행중에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9년 완공까지 차별화된 CM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Project 15.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 1,2 [Asan Tangjeong Display City1,2]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발주처	삼성디스플레이
규모	1단계 : 2,450,962m ² 2단계 : 2,120,510m ²	HG서비스	CM + CS



아산 탕정을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1995년 12월부터 시작된 민간사업주도의 최초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1단계 사업(DCI)은 2015년 12월 31일 준공인가 승인을 득함으로써 20년간 진행된 사업을 종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DC2)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한미글로벌은 2000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계획 수립, 부지계획,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주요 기본 틀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토목, 환경 및 건축분야 등 광범위한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 기획, 예산관리, 계약관리, VE 시행(사업비 2,360억원 절감 효과),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 관리, 문서통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임직원 아파트인 트라팰리스는 체계적인 설계·시공관리로 2010년 Good Design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미글로벌의 고객 사업성공을 위한 발주처 지원 및 관계사 조정 등 현장의 우수 CM사례는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Project 16. 제주항공우주박물관 [Jeju Aerospace Museum]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발주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규모	30,146m ² (지하1층, 지상 3층)	HG서비스	CM + CS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미래첨단산업인 항공우주 과학기술을 테마로 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킨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첨단 항공우주 전문 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세계 항공의 역사와 대한민국 공군의 발자취를 담은 다양한 항공기가 전시되고 고대에서부터 우주 탐험시대를 열어가기까지의 천문학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미글로벌은 2009년 5월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설계 전 단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그리고 준공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터키 입찰안내서 작성, 설계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토클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2년에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VE 경진대회의 공공 발주청 부문 건축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미글로벌은 이 대회에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성능향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가치향상, VE 방법론에 대한 개선, VE 역량강화 및 활성화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Project 17. 서울 복합 물류단지 [Seoul Integrated Freight Terminal]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발주처	서울복합물류 PFV
규모	399,725m ² (지하2층, 지상 8층)	HG서비스	CM + CS



국내 최대의 도심형물류단지 개발사업인 동남권 물류단지 PF사업에서 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 관리(CM)자로서 설계, 시공, 안전, 사업비,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도면 및 기술문서 검토,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인허가 관리, 현장 품질 관리, 안전 및 재해 관리, 현장 환경 및 민원 대처와 더불어 완료된 공정에 대한 검증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PF사업의 특성상 전략적 투자자인 택배회사들과 건설적 투자자인 건설회사들 간에 공사비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약 700억 원의 공사비를 줄여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CM단은 굴토공사가 진행되는 6개월에 걸쳐 설계 VE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협상을 통하여 약 344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고 PF사업자 간에 설계변경과 공사비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미글로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2015년 5월 첨단 물류단지가 오픈됨으로써 서울 전역의 허브 터미널을 구축할 수 있었다.

Project 18.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location Project]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일대	발주처	농촌진흥청
규모	부지면적 : 6,024,564m ²	HG서비스	CM +CS (Program Management)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확정에 따라 1906년 수원시에 권업모범장 설치로 시작된 농촌진흥청(본청 포함 5개 기관)은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5개 기관 이전 사업은 부지 면적 6,024,564m²에 공사비 8,924억을 투입하여 단지내 도로, 차도, 농업 실험을 위한 시험포장, 141개의 건물, 연구실험실 1,077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토목, 농업토목, 건축, 특수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된 사업이다.

한미글로벌은 Program Management 기법을 도입하여 종합사업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수주에 성공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4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미글로벌은 Design-Bid-Build, Turn-key 등 다양한 발주방식과 연구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농업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한미글로벌은 향후 200년간 한국 농업연구 역사를 창조할 최첨단 친환경 농업생명연구단지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roject 19.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Southcape Owners Club]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발주처	(주)한섬피앤디
규모	부지면적 : 23,066m ² 연 면 적 : 15,101m ²	HG서비스	CM +CS / CM at Risk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가에 자연환경을 그대로 품은 고품격 골프 리조트가 있다. 그곳에는 한미글로벌의 땀과 노력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한미글로벌은 최고의 작품을 위해 클럽하우스 재설계를 결정한 발주처의 사업일정지연 최소화를 위해 fast track 방식을 통한 책임형 CM을 적용하게 되었다. 설계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시공 상세(Detail) 검토, cost control, 하자 예방 및 유지관리 최적화를 위한 검토를 설계 진행과 병행하였다. 발주처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visual mock-up을 통한 비정형 백색노출 콘크리트 외관을 구현하였다.

한미글로벌은 고객 중심의 건설과정으로 설계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함으로써 클럽하우스는 2013년 경남건축대상 금상을 수상하였다. 미국의 Kyle Phillips가 설계하고 한미글로벌이 CM을 수행한 골프 코스는 남해안의 절경과 함께 어우러져 최고의 골프 코스로 알려져 있다.

Project 20. 송도 컨벤시아 [Songdo Convensia]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발주처	송도국제도시개발(유)
규모	연 면 적 : 52,480m ² (지하1층, 지상4층)	HG서비스	CM + CS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비행거리 35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51개가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며 하루에 300여 편의 항공기가 운항하는 인천공항과 동북아 물류 중심 인천항에 근접해 있어 하늘과 바다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곳이다.

한미글로벌에서 CM을 수행한 송도 컨벤시아는 이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략지역에 위치하여 인천공항과 더불어 국제비즈니스 산업을 이끄는 유기적인 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은 물론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송도 컨벤시아는 한반도의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복합 컨벤션센터로 첨장높이 32m, 길이 144m의 거대한 대공간 전시장이다. 대공간 지붕은 3D-Modeling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첨단 디자인을 구현하였고 국제 친환경 LEED 인증을 받았다. 최첨단 공학과 건축미학이 결합된 건축물로 인정받아 2008년 매일경제 선정 “건축대상”을 수상하였다.

특집2. 한미글로벌 이야기

01. Best Project Interview

롯데월드타워 : 555m / 123층

Q1.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주세요. 최고의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상 555미터, 123층의 롯데월드타워는 국내 최초로 100층이 넘는 건물로서, 완공 시 세계 6위의 초고층 프로젝트이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아름다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6년 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2016년 12월 성공적인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글로벌은 국내외 다수의 초고층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착공 전 Pre-Construction 단계부터 초고층 기술 지원과 아울러 시공단계 전반의 공정, 품질, 안전 등 제반 기술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구성원 역시 분야별 전문가를 사업 단계별로 적기에 투입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김문수 전무, 추현필 상무, 양재건 전무가 이어서 단장을 맡았으며, 기술 및 시공 품질 관리에 심재진 이사, 김승욱 부장, 이동섭 부장, 모명석 차장, 심미루 과장, 신재원 과장, 원종훈 과장, 안효상 과장, 임수철 대리, 김지완 대리가, 공정관리에 전은도 부장, 설계관리 안장호 부장, 김형배 과장, 구조 김상범 부장, 류기준 차장, 철골 김종민 이사, 외장 커튼월 박혁 차장, 토목 백기철 부장, 안전 환경 김보현 부장, 공무 행정에 김성원 차장, 박정음 대리, 이주현 사원이 그들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고의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유는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인 점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원하여,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이와 같이 세계적인 건축물을 세간의 많은 우려를 불식하고, 최상의 품질로 또한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2. 당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성공 요소로서 공정, 원가, 품질, 안전 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당 프로젝트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완성된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공사 중 작업자의 안전과 무재해가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이슈입니다.

Q3.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재까지 최대의 위기는 언제였고 무엇이었나요?

골조 공사 도중, 언론에 큰 이슈를 불러 온 Mega-Column과 대형 Spandrel Girder와의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크랙(Crack)의 원인 규명과 보완, 공법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Q4. 어떤 행복경영 활동을 실천중인가요? 행복 길라잡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항상 업무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는 관계로,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부드럽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일 파티, 인근 석촌호수로 도시락 점심 소풍, 단체 카톡방 대화, 단체 영화 관람, 재미있는 책 읽고 독서 토론하기 등과 아울러 기급적 불필요한 야근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행복 길라잡이는 흥일점 귀요미 이

주현 사원입니다.

Q5.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객과 관련한 에피소드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워낙 이슈도 많고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현장이어서 그런지 에피소드가 끼어들 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재미있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 한다면, 하루는 발주처의 임원 한 분이 특별한 용무도 없이 저녁에 좀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하려나 하고 조금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만났는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검정색 박스를 들고 노래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대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기로 했는데, 미리 연주를 듣고 평가를 좀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 보는 일이었지만 곡명과 연주 순서를 조언하였고, 아울러 롯데월드 콘서트홀의 개막 연주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일을 떠나 고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Q6. 이 프로젝트에서 꼭 이루어 내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하며, 최상의 품질을 갖춘 초고층 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우리 한미글로벌이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초고층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 회사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심재진이사) 생일파티(14.07.10)]



[석촌호수 점심 소풍(14.07.14)]



02. Excellent People Interview

POD 박서영 상무

Q1. Excellent People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일해 오신 주요 현장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교보생명 본사사옥 리모델링, 서울스퀘어(구 대우센터빌딩) 리모델링, 송도 애니파크 빌딩 신축, 삼성생명 전주연구소 증축, 하나드림타운 및 통합데이터센터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는 시공 이전단계부터 시공단계의 시작과 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참여할 기회가 많아 프로젝트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시간이었기에 이를 뒷받침해 준 회사의 배려에 늘 고맙습니다.



[하나통합데이터센터 착공식(15.09.08)]

Q2. 2015년 Maestro CMr 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드림타운 및 통합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이라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의 단장을 수행할 기회를 주신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청라지역에 5개 블록, 대지면적 65,000평, 연면적 95,000평의 금융타운을 국내 최초로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 사업입니다.

시공 이전단계부터 Pre-con service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 방식은 BIM 3D 모델링을 통한 가상시공으로 설계 대안별 공법, 공사 간섭, 공기 및 공사비 검토 등을 통하여 설계 오류의 최소화 및 고객가치 극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는 모든 사업 참여자가 상주하며 Target Value Design기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고객인 하나금융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금융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당사를 CM사로 선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단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무한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내 행복하게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연말 Maestro CMr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5개 조직 100여명의 다양하고 많은 참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CM단은 많은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저는 CM단장으로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한 배를 탄 파트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서로 각자의 전문분야를 존중하며 신뢰와 협력하는 진실된 사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정도(正道)라고 생각합니다.

Q3. 성공적인 단장/조직장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장은 고객과 본사와 프로젝트 참여자를 균형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CM의 존재는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임으로 이해시키고, 우리의 3번째 핵심가치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모든 행동과 시스템의 운영에서 언제나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단장 스스로 CM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CM은 고객 즉 발주자의 대리인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수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의 비전문가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CM이 필요한 것이고, CM은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설명하며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탁월한 리더의 역할이 성공적인 단장의 중요한 밑거름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현장 개설 초기에 구성원들에게 CM은 건설경영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고객의 관점은 물론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프로젝트 참여자를 설득하는 경청과 공감, 결단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Q4. 고객과 에피소드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송도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구성원 중 한 명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프로젝트 초기에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마음이 다스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주기적으로 정독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 ‘메기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맞추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고객으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CM으로서 그 분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한 가지 과제라고 생각하면 최선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술적인 능력 또한 한 단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진정성 있는 우리의 업무 태도는 초기 어려움을 잊게 하고 중반 이후에는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CM단은 다소 대하기 어려운 고객 덕분에 오히려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인문적인 소양 모두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후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려운 과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프로 근성을 갖고 물러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5. 본인에게 한미글로벌은 어떤 회사입니까? 앞으로 본인의 꿈, 계획이 있다면?

제게 한미글로벌은 4번째 회사입니다. 저는 설계사, 시공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한미글로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저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성원 스스로가 본인의 존재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우리 회사의 강점이 아닐까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서도 고객이나 프로젝트 참여자, 시설 운영팀 등에서 건축물과 건설 사업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제 지식으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그분들께 인정을 받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동안 건설업을 하면서 제가 사회와 회사로부터 배운 지식과 지혜를 당면한 프로젝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을 한 단계 높이는데 활용하고, 후배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창달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03. 퇴직 구성원 Interview

황규찬 이사 (재직기간 : 1996 ~ 2013)

201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트는 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곤 했는데, 올해는 싱승생승합니다. 바로 어제 한미글로벌을 그만두고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있구나 실감합니다. 그리고 보니 한미글로벌에 근무한 기간이 해수로 17년이 넘었습니다. 한미글로벌과 강산을 두번 넘은 셈입니다. 창립초기 수십명의 인원이 모여서 일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0여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한미호(號)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한미호(號)에서 내립니다.

1997년 가을 한미건설기술에 와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프로젝트도 제법 많이 늘어나고 유지되어서 사람도 더 많이 뽑아야 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10명의 엔지니어를 채용대상자로 내정해 놓고 채용통보를 마친 때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신문경제면에 동남아발 외환위기가 태국,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다는 등의 뉴스를 접하던 중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IMF가 터졌습니다. 대상자는 며칠 후면 단계적으로 입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가 무언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드디어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취소 또는 중단되면서 회사에도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상자별로 전화를 해서 상황이 바뀌었으니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였는데, 두 명이 문제였습니다. 한 분은 회사에 사직서를 이미 냈는데 처리중이라고 하기에 지금 즉시 회사로 돌아가서 사직서가 누구 손에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철회하라고 밀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해 하던 그분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다행히도 철회가 가능해서 그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다행한 일입니다.) 또 한 분이 문제였는데, 이분은 이미 다 정리해 놓고 언제부터 출근해야 되느냐고 물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표님 (김종훈 회장님)께 보고하고 의논을 했는데, 다른 부서의 반대도 있었지만(있는 직원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미친 짓이라는 것인데, 객관적으로는 타당한 생각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일단 입사시키자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결정한 일이고 모두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후로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다행히 외환위기에서 빨리 극복이 되어서 일이 잘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암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약 3개월간의 의식불명상태를 벗어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살아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병원비의 부담 때문에 중압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알량한 재산 병원비로 다써버리면 아이들은 어떡하나… 치료가 안되면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이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회사의 배려로 당분간 병원비 걱정은 안해도 되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로서는 염치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봄입니다. 봄이 와서 아지랑이가 피는 따스한 계절이지만 마음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영업환경이 종전보다 더 어려워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규모나 양적으로는 종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발전해 있습니다. 매출은 1000억을 넘어섰고, 인원은 650명에 달해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게 질적으로 도 발전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 예로 프로젝트는 많아졌는데, 본사에서 이를 담당하는 설계관

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부응해야 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본사를 축소해야 하는 상반된 목표가 충돌된거죠. 거기에 더해 평생직장을 고수하려는 경영철학과 조직과 인력을 짧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 앞에 최고경영자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한미글로벌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죠. 생장소멸은 인간과 자연계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생존의 원리앞에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글로벌의 핵심역량은 결국 사람입니다.

한미글로벌이 지금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한미글로벌을 제 주변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04. 장기 근속 구성원 Interview

유현열 이사 (아모레 퍼시픽 대전 코스비전 CM현장)

Q1. 본인 및 직무 이력 소개

지난 1999년 1월 14일 IMF시대의 혹독함이 계속되던 때 대학원에서 CM을 갓 전공하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노동부 인턴사원으로 우리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우리 회사는 국내 공공공사 CM 제1호였던 ‘2002년 월드컵’의 주경기장이었던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현장에서 CM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 현장에 신입사원으로 배치되었다. 당시만 해도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은 현장이 종료되면 직장을 잃고 있었고 대학 졸업생들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던 아주 암울한 시절이었으며, 우리 직원들 중 상당수도 재택근무를 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나 또한 시골로 하향하여 농사일이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도교수님과 회장님’의 배려로 운 좋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하였다. 나는 6개월을 근무한 후 1999년 7월 18일 마침내 노동부 인턴 딱지를 떼고 현장 채용직 신분으로 우리 회사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이후 상암동에서 3.3년을 근무한 후 본사 POD에서 2.5년, 까르푸 인천 용현점에서 0.5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5년,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에서 4.5년을 근무한 후 2015년 5월 중순부터 아모레퍼시픽 대전물류센터 & 코스비전 현장에서 단장으로 근무 중이다.

Q2. 나에게 한미글로벌이란? 한미글로벌은 000이다.

사람의 사회적 인생을 1기(태생~학교), 2기(사회생활), 3기(은퇴~사망)로 구분한다면, 한미글로벌은 나에게 제2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위나 오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사물을 자기의 어미라고 생각하듯이, 나에게 한미글로벌은 사회생활의 울타리에서 처음 본 조직이므로 내 2기 인생의 어미와도 같다.

Q3. 그 때 그 사건, 그 사람,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세요.(과거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서려있는 사람, 현장, 사건 등)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내가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우리 회사에 중요한 것들 이었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 또한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몇 안되지만 그들 모두를 이 지면을 빌어 나열해보고자 한다.

1) 1999.01 ~ 2002.04 서울월드컵경기장, 기사~주임

국내 공공공사 CM 제1호로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한다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CM요원들이 근무하였으며, 발주자인 서울시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종료 시에는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던 프로젝트이다. 월드컵경기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12월에는 회장님이 대한민국 체육포장을 수상하시게 되었다.

그때 함께했던 직원으로는 서권종(부단장, 건원ENG 고문), 오현석(기계), 김경남(공무, 따뜻한동행 대표이사), 노송근(구조), 민재일(전기), 장경재(철골), 강영조(철골), 원덕재(토목), Bisher Ammari(구조 비상주), 윤종태(지원), 황현주(사무)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잊을 수 없는 동료들이다. 참고로 나는 그 현장에서 공무행정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이 가장 싫어 한다는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과

문서정리업무가 대부분 이었지만 간접적으로 기술지식을 습득하려고 무단히 애썼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2) 2002.05 ~ 2004.10 본사 POD, 주임~대리

POD는 Project Operation Department의 약자로서 내가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에는 프로젝트관리 팀으로 불렸으나 회사 내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본사와 현장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3년 즈음부터는 프로젝트 지원팀으로 불리다가 요즘은 프로젝트 운영팀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근무 하던 그 기간 동안 우리 회사는 내부운영시스템이 정비되는 시기로 'hits, EDMS, MIS, CoP, HPMS, KMS, LMD, e-jip, GWP, 기술연구소, 해외진출, 연구책자 발간'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명실상부한 Excellent Company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POD도 그 중심부에 있었고 나는 젊은 피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회사에는 6~7명의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Due Diligence, 현장 지원(안전, 공정, 품질) 업무를 함께 수행했었다. 매우 바쁜 나날들 이었지만 회사생활이 재미있고 즐거웠던 기간이었다.

그때 함께했던 구성원으로는 2002~2003년에 이병수(본부장), 김정호(팀장), 백나현사원이 있었고 2003~2004년에 Bisher Ammari(본부장), 손정선(팀장), 박준호, 김혜정사원이 있었다. 당시 같이 근무 했던 외국인 동료로 David Moore(부사장), Geoff Wallace(품질), Ian Mcgreger(안전), Harry Franks(품질), Gorden Brisbane(공정), Kenneth Covington(원가) 등이 있었으며 현재 외국인 동료는 한분도 남아 있지 않다.

3) 2004.11 ~ 2005.5 까르푸 인천 용현점, 대리

처음으로 건축분야 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우리 회사는 홈플러스, 까르푸, 농심 메가마트 등 상당수의 대형할인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공기가 13개월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상황에 따라 매우 힘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까르푸 인천용현점도 인천 바다 옆에 위치해 있어 지하층 공사 시 지하수, 흙막이 터짐, 부분적 암반노출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고 그 결과 동절기(11월~2월)에 골조공사를 하고 이후 3개월간 미감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숨막히는 현장이었다. 솔직히 그때 나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미래 예측을 통해 시공사를 리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 때문에 무수히 많은 직발주 업체들과 공종별 시공사들을 적시 적절하게 Coordination 하지 못하여 모든 비난과 불만의 화살이 내게로 집중되기도 했었다. 현장에서 CM업무의 대부분은 Coordination(조정과 통제)으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재작업, 공기지연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데 Coordination 역량은 상당수준의 기술적 및 관리적 역량이 쌓여야만 가능한 것임을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때 함께했던 직원으로는 유은종(단장), 김창식(기계), 최상민(전기) 등이며 현재까지 모두들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이다.

4) 2005.05 ~ 2010.08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과장~차장

먼저 고백하지만 알펜시아 현장은 나의 직장생활에서 처음으로 고뇌를 맞보았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프로젝트였다. 전 현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공공사인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알펜시아 리조트 현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회사는 대부분 민간공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공공공사는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알펜시아 프로젝트의 발주자인 강원도개발공사(GDC: Gangwondo Development Corporation)의 사장께서 알펜시아 리조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진

건설사업관리제도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정착시킨 우리 회사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알펜시아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패키지들을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리해야 하는 Program Management였으며, 그 속에서 나는 사업관리(공무)를 담당했었다.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 현장의 CM단 조직에서 공무는 사업을 리더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고도의 역량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나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이나 까르푸 인천용현점 등에서 가까스로 CM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밖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다. 사업초기단계는 대부분의 업무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유사한 규모와 성격의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없었던 나는 제대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초기 1년 동안 단장이 2번 교체되었고 사업관리팀장 및 공구장들이 몇차례 보강되면서 조직은 안정화되었고 '인허가, 공사발주관리, 사업일정관리, 설계관리' 등의 핵심CM업무들을 접할 수 있던 소중한 프로젝트였다.

알펜시아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했던 전략은 A공구의 최고급빌라를 조기에 분양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초기단계부터 성공적인 분양이 사업추진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고 CM용역 과업범위에 Marketing이 포함되어 있어 CM용역의 Risk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 와중에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위해 2007년 2월 IOC위원들의 현장실사가 있었고 이후 2007년 7월 4일에 개최지가 러시아 소치로 최종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당시 러시아는 넘쳐나는 오일 달러로 IOC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말이 들리기도 하였다.

어떻게 보면 CM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에게는 악동이 일어난 것이었다. 발주자는 CM에게 책임전가를 하려 하였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CM용역 변경계약 시에는 단가를 깎기도 하였는데 발주자의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CM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이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사업은 어렵게 추진되었지만 CM단 구성원들은 해발 770m에 위치한 평창의 수려한 관광지를 맘껏 즐겼으며 봄가을의 등산, 여름휴가(해수욕, 피서), 겨울 스키 등 도시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번 큰마음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 경험할 수 있었다. 눈꽃으로 덮인 용평의 겨울 장면은 잊을 수 없다. 요즘도 문득 문득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스키점프 대륙컵대회 개최(11.01.20)



알펜시아에 첫 눈 내리던 날(11.12.02)

천만 다행으로 2011년 7월 6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평창으로 결정하였다. 3수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다. 우리회사는 이미 철수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감개무량

했다. 우리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와 발주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자세라 생각된다.

알펜시아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장기간 진행되었고 많은 동료들이 함께 했었다. 정의균(단장), 양재건(단장), 김경남(단장), 장종국(사업관리팀장), 윤인진(사업관리팀장), 김기홍(사업관리팀장), 김철호(A공구장), 임경범(A공구장), 정권모(B공구장), 이태수(B공구장), 박홍렬(C공구장), 한기수(공정), 전은도(공정), 이승렬(구조), 임동준(건축), 최원석(토목), 이기은(토목), 박재웅(원가), 이성백(원가), 최용재(원가), 김창식(기계), 신용일(전기), 서희준(사업관리), 만병옥(인허가), 유윤경(건축), 임석(건축), 임희준(조경), 장용배(조경), 이용광(조경), 최영상(골프장), 임수철(인턴) 등이다.

5) 2010.11 ~ 2015.5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차장~부장

당해 사업은 2003년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의 국립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로 이전하는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 사업인 동시에 국가연구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프로젝트였다. 나는 안식휴가를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자마자 농진청 현장으로 가야한다고들 하였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알펜시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나는 어느새 회사 내에서 공공공사 전문가로 불리고 있었다. 농진청 현장은 규모가 알펜시아와 비슷하였고 공공공사인데다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전 현장의 것과 유사하여 나는 사실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다.

현장에 부임하자마자 최초로 부닥친 것은 CM단의 조직구성이었다. 알펜시아에서는 설계단계에 분야별로 여러 명이 배치되었었는데 농진청은 알펜시아보다 5개 공구로 나뉘어져 있고 턴키방식과 설계시공 분리방식이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분야별 직원이 1명씩 밖에 배치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고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상당히 불투명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조달청이 맞춤형서비스로 참여하여 CM용역을 발주함으로써 CM이 해야 할 업무를 조달청이 하게 되었고 그 결과 CM단을 상당부분 축소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도 엄격히 따지면 국가기관으로서 수요기관인 농촌진흥청과는 갑과을 관계가 성립될지 모르지만 CM단이나 시공사에게는 어연한 발주처(갑)의 위치에 있었다. 더구나 조달청은 건설산업에서 계약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각종 발주업무를 대행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조달청과 CM 단의 수행업무가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었지만 평행적 위치가 아니라 CM단 상위에 있어 CM단은 인력부족과 추가업무발생 등의 2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설계단계는 건설사업의 ‘비용-편익’ 곡선에서 보여지듯이 중요도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그럼에도 농촌진흥청과 조달청은 공무원의 특성상 절차와 문서를 중요시하였고 모든 기술적 책임은 CM단, 설계사, 시공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오직 감사를 의식한 행정절차적 업무에만 집중하였다. 사업의 각 단계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의 소임을 다 하여야 했기에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CM용역계약의 포괄적인 책임문제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설계단계, 시공사 선정단계 및 Fast Track이 진행되는 공사 초기단계에서 CM단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많은 인력이 교체되어야만 했었다.

시공단계에서도 조달청과 CM단의 역할 정립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나를 포함한 CM단의 몇 명 직원은 조달청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에

경험이 없는 국가기관을 대행하여 발주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CM단이 투입되는 현장에 조달청이 맞춤형서비스 명목으로 투입되어 관리업무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업무중첩이고 국가적인 낭비요소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각종 감사를 대비해서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현장에서도 감사원 상주감사를 2개월 받았었는데 조달청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될 것 같은 사안도 무마시키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분명한 것은 조달청은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민간 CM업체와는 분명히 다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농진청 현장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를 CM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고 5개 공구 모두 CM단의 노력으로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준수하게 되어 준공시점에서 CM 단의 위상은 회복되었다.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현장도 대형 프로젝트로서 많은 동료들이 함께 했었다. 김성식(단장), 양재건(단장), 김경남(단장), 정하진(단장), 임동준(건축), 이해욱(건축), 정종관(기계), 이영우(기계), 임경범(1공구장), 박홍렬(4공구장), 조용희(5공구장), 임석(건축), 김두선(조경), 이병희(토목), 고영환(토목), 정성교(토목), 신동관(인턴) 등이다.



[농업생명연구단지 기공식(11.07.22)]



[감사패 및 표창장 수상 (15.04.29)]

6) 2015.5 ~ 현재 아모레퍼시픽 대전물류센터 & 코스비전, 부장~이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한지 15년 만에 단장 발령을 받았다. 몇 개의 현장을 거치는 동안 나도 어느덧 리더의 위치에 서야만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회사차원에서 어려운 공공공사를 수행해 낸데 대한 보상을 주고자 했던 취지도 일부 있었던 것 같다. 어째든 나이가 40대 중반이면 소형 프로젝트에 대한 CM단장 역할은 무난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간 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실무만 담당하다 보니 단장 발령을 받은 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단장과 직원은 다르다는 것이다. 단장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간 실무자로서 더욱 정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무엇이든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다.

요즘 나는 단장회의, 경영전략회의 등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논하는 각종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직장생활에 대한 Mind가 변하고 있다. 회사 경영전략 달성, 부하육성, 수주 등으로 무언의 중압감을 받기 시작하였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심적 무게를 져야 함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Q4. 가장 기억에 남는 구성원은? (상사 or 부하직원)

내게 있어 제2의 인생 사수는 ‘현 따뜻한동행 건축사사무소’ 김경남 대표님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1월말 기준으로 나의 우리 회사 재직기간은 16년이며, 그 중 서울월드컵경기장(3.3년), 알펜시아(4년), 농촌진흥청(1.3년) 등 총 8.6년을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다. 사고방식이 변함없이 젊으시고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넘쳐나고 직원들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뛰어나신 분이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나 보다 11년 연배이시지만 사고방식은 나보다 11년 더 젊으시다. 한번 사수(고참)는 영원한 사수이듯이 아직도 그 분을 대할 때면 긴장이 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마지막 3개월간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95%를 담당하셨고 나와 나머지 직원들이 5%를 담당하였는데 프로젝트의 역사는 물론 CM단에서 수행하였던 모든 업무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김대표님이 Workholic에 빠져 미친 듯이 보고서를 작성하셨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난다.

이후 알펜시아에서는 CM단장 배 탁구대회, 발주자와의 족구대회, 새벽 골프모임, 계절별 등산, OB모임 등 다양한 GWP활동을 펼치셨는데 그 결과 CM단은 4개 회사로 구성되었지만 참여 구성원들은 벽이 없는 열린 조직문화 속에서 모두 단결하였다. 특히, 나에게는 특혜를 베풀어 현장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즉, 현장이 정착된 후 B공구에 배치하여 특1급 호텔과 콘도 2개동, 경비실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성토, 측량, 기초, 골조, 마감공사 등 일련의 공사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었는데 행정위주의 업무만 수행했던 나는 비로소 기술관리 업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오랫동안 나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

Q5. 장기근속을 하면서 한미글로벌이 가장 좋았던 점은? 안식휴가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우리 회사에는 고유한 복지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안식휴가(Refresh Vacation)제도와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자녀가 어려 학자금 지원은 못 받고 있지만 알펜시아 리조트를 마친 후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안식휴가를 얻었다. 말 그대로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45일간을 여행만 하면서 지냈다. 일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못한 나의 죄책감을 씻어 내고 싶었고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싶어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둘째 처형께서 조카의 어학연수를 위해 뉴질랜드에 계셨기 때문에 숙박문제가 없어진데다 천혜의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휴식에는 최적이라고 강조하셔서 작정하고 떠난 여행이었다.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고 안식휴가의 정수를 맛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Queenstown, Luge]



[Milford Sound]

뉴질랜드는 국토 전체가 천연의 자연으로 가득 찬 휴식처였으며 북섬(오클랜드, 로토루아, 해밀턴, Lake Taupo), 남섬(크라이스트처치, 카이코우라, 넬슨, 티마루, 오마루, 드니든, 마운트쿡, 퀸즈타운, 테아나우, 밀포드사운드)을 두루두루 여행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고속도로가 없었고 나무로 덮인 숲도 없었으며,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언덕과 양과 소만 보이는 미지의 세계 같았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에게 안식휴가지로서 꼭 권하고 싶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웠던 날들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제2의 안식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Q6. 본인의 향후 계획 및 포부, 30년사 발간 시 본인의 모습에 대한 전망은?

나는 향후 15년 이내에 남북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다. 완전한 흡수통일은 아니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한 채 상호 협력과 교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때 나는 통일된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회사가 건설 산업을 리드하고, 건설 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꺼이 한몫 하고 싶다.

그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영어, 중국어, 일어) 향상,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능력 확보, 미래 산업에 대한 학습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0년사 발간 시점에서는 성공적인 Salary Man의 Model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05. 경력 사원 Interview

김장수 부장 (ENG실)

Q1. 본인 및 직무 이력 소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에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91학번) 대학원 진학과 취업의 기로에서 설계사무소 입사를 하면서 공식적인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설계사에서 엔지니어링 기사 및 기술사 취득 후 대우엔지니어링(現 포스코 엔지니어링) 산업플랜트 사업부로 이직하여 산업 클린룸 프로젝트 설계, 시공 및 기술제안 및 입찰 업무 수행을 통해서 제 자신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새롭게 배가 시킬 수 있었으며 소중하고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2005년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 국내 건설사업관리 1위 업체이자 그토록 입사하고 싶었던 한미글로벌에 입사를 하여 엔지니어링실, 국내 및 해외현장을 거쳐 현재는 엔지니어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회사에 입사한지 10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Q2. 나에게 한미글로벌이란? 한미글로벌은 000이다.

첫째,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

공통된 목표설정을 통한 비전 제시와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미션과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념 제시 등 우리 회사는 구성원들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투명경영 및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경영진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전 경력직 입사 당시 인사팀 입문교육을 받을 때 질문 받은 내용이 떠오릅니다. 귀하는 기업의 이념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시 저는 “이윤창출”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만, 기업의 이념목표는 “지속”이라는 답변을 교육 담당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변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회사도 없고 본인 자신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변화와 혁신에 성공하면 초일류 회사가 되고, 회사에 속한 본인 스스로도 초일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진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근무하면서 늘 깨닫곤 합니다.

셋째,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고의 CM 회사이자 자부심을 갖게 하는 회사

우리 회사는 전문 기술자 집단으로서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매우 높고, 구성원 중심의 행복경영을 통해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전이 뚜렷한 기업, 투명한 기업, 구성원 중심의 기업으로서 국·내외 사업다각화 및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조력자(Facilitator)

본사에서 A사 프로젝트로 발령이 나면서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현장근무를 했었던 6년 전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서 공무 및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본사 및 현장 단장님의 배려 속에 무사히 대학원 논문 및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학부의 전공은 기계공학이었지만

대학원은 건축공학을 전공하였으며 대학원 졸업을 계기로 해외현장 CM 단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 대학원 논문 중 “감사의 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글”

사무실과 학교를 오가며 분주하게 보낸 공학대학원 학업기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지만 교수님, 원우들과의 대학원 생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나날이었습니다. 2년 반의 공학대학원 과정은 저에게 많은 것을 일깨우고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나날이었으며 지금의 순간이 있기까지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초심 잊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정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로 석사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이승복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논문을 검토하여 주신 김병선 교수님, 김태연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공학대학원 전 과정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님 이하 임직원 및 교육 담당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봐 주며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사랑하는 동갑내기 아내 윤경과 첫째 아들 상진, 둘째 아들 상우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Q3.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우리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근무한 곳은 본사 엔지니어링실입니다. 프로젝트 초기 기획단계 CM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고객니즈 분석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성공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다양한 고객들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제조공장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화장품 제조, 포장 및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대규모 공장 프로젝트로서 저는 기계설비 분야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CM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계단계 CM은 당사가 수행하고 시공단계는 발주처의 예산 문제로 인하여 타사와 JV(Joint Venture)방식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입니다.

JV방식의 특성상 타사대비 우리 회사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프로젝트가 중반이후에 접어들수록 고객이 원하는 CM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 갔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객은 불만사항을 내색하지 않으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의 니즈 파악은 어려워지고 있던 찰나 “내가 만일 고객이라면 어떤 고민을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였습니다. 해답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또한 고객이 CM을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구축하지 못하면 고객만족은 구호에 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객만족과 고객니즈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끝에 대규모 공장 특성상 설계에는 참여하지 않던 발주처 현업 담당자의 의견이 공사 중에 반영되어 잦은 설계변경이 수반되면서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어려움이 처해지는 경우를 발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추진팀과 또 하나의 다른 고객인 발주처 현업 담당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기 및 공사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CM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고객의 니즈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불가피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 직접 엔지니어링 업무수행을 통해 기술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였고, 시공사의 업무지시 및 신속한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당초 건축주가 원하던 공기 내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고객과 당사와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고 본 프로젝트 CM서비스 종료 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약 1개월 건물 운영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의 해외사업 중국 신축프로젝트라는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CM단장으로 근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국내도 아닌 중국이라는 해외 프로젝트에서 첫 CM단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믿고 맡겨 준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그리고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해외 프로젝트는 국내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상해 아모레퍼시픽 공장]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 CEO 출장(14.10.21)]

려한 공정 시뮬레이션 분석(준공일 1년 2개월 전), 건축주 보고, 건설사 공문 발송을 통해 건설사 본사의 기본적인 공기지연 대책 수립 및 당사 본사의 업무지원을 받음으로써 정해진 일정 내에 공사를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그 특성이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고객이라고 해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고객의 니즈는 상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의 고객을 대함에 있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며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및 고민을 통해 고객이 프로젝트 의사결정 관련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며 오픈 마인드와 진정성을 갖고 고객의 고민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계단계 CM업무의 경우 중국 설계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미흡으로 인/허가 및 설계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시공단계에서는 대규모 지하공사 수행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공기지연으로 전체 사업 일정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끝없는 벽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발주처 조직이라도 한국과 중국에 상주하는 고객의 니즈가 충돌되어 이중고를 겪는 등의 상황 속 CM단장으로서 고객 만족 및 가치창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지 끝없는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을 위한 CM의 서비스는 안전(Safety), 원가(Cost), 품질(Quality), 공기(Schedule) 및 시공사를 리드하는 리더십 등의 측면에 집중되지만, 공사비 증감 및 사업일정지연에 따른 건축주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CM전문가 입장에서의 명확하고 신속한 기술검토서 작성, 발주처 입장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판단력 및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예측업무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여 공사일정을 고

지금까지도 저는 고객과 지속적인 인연을 갖고 추가 수주(Repeat Order)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당사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마음이 고객에게 전달되어야만, 고객가치 창출을 통한 추가 수주 증가, 기업의 이윤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Q4. Before / After 입사 전에 알고 있던 것과 그대로인 것, 다른 것은?

입사 전 알고 있던 한미글로벌은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기업, 일하기 좋은 직장,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영어를 잘 해야 입사할 수 있는 회사 및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CM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보면 회사의 경영이념,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이미지와 이념가치는 변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 기준 약 300여명이었던 직원의 수가 현재는 오톡, T&T, 에코시안, 아이아크 등 자회사를 거느린 약 1,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이 되었으며 매순간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멈추지 않는 기업으로 지금도 성장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5. 본인의 향후 계획 및 포부, 30년사 발간 시 본인은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10년 후 우리회사와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회사의 매출은 지금보다 10배 그 이상으로 증가하여 Global CM Top 10에 랭킹되어 진정한 Great Global CM Company로 우뚝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회사가 생각하는 흐름을 읽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혜롭게 더 나은 깊은 혜안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마치 물 흘러가듯이 막힘없는 부드러운 소통을 겸한다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직원으로 성장이 되어 어떤 한 분야의 리더가 되어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꿈을 꿀 때 그 꿈은 실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한미글로벌이 세계적인 No.1 CM Company”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06. 여성구성원 Interview

박경희 부장 (네이버 정자동 현장)

Q1. 본인 및 직무 이력 소개

옛스러운 표현이지만, 꿈 많던 ‘92학번’ 건축학도였구요. 1996년에 ‘아키플랜’에서 첫 등지를 틀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희림’ 디자인 전략사업본부에서 약 4년간 근무를 하였으니, 설계사무소에서만 1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인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철이 들면서, 페이퍼 디자이너(Paper Designer)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설계 또한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리가 되고 나서, 디자인부터 실시설계까지 수행하는 부서로 옮겼고, 이를 계기로, 부산 및 제주에서 설계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공사에 비해 설계사무소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기는 해도, 보수적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는 더욱 여성 엔지니어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었던 시절이었으나, 자진해서 현장 설계감리를 신청하였고, 다행히 경쟁자가 없어 직접 설계한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인물은 썩는다”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가지고, 2007년 12월부터 한미글로벌로 등지를 옮겨, 개발사업부에서 약 2년간 근무를 한 후, 현재는 Pre-con CM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NHN 용역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네요.

Q2. 나에게 한미글로벌이란? 한미글로벌은 000이다.

한미글로벌은 “나의 삶”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한미글로벌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순간들이 모여 시간을 이루고, 그것이 곧 삶이니, 현재를 구성하는 순간들의 대부분은 한미글로벌에서 일하면서 부딪히며 해쳐 나가는 저의 노력들이 집합체라서, 저는 저와 한미글로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Q3. 그 때 그 사건, 그 사람,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세요.

네이버 춘천 연수원 설계단계 CM(2009.11~2012.09)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한 후,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 발주처 내부적인 분위기가 국내의 여러 CM회사를 경험해보자는 기조가 있었기에, 안 타깝게도 시공단계 CM업체는 ‘건원엔지니어링’으로 결정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NHN(발주처) 박치동 이사님(프로젝트 PM)께서 ‘시공단계 자문용역’이라는 형태로 저(1인 단장)를 시공단계까지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본사에서도 흔쾌히 발주처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2012년 11월 첫 시공사 및 CM단과의 KOM(Kick Off Meeting) 자리에서 박치동 이사님은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발주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실 한미글로벌 박경희 단장님입니다. 모두들 발주처라 생각하고 업무 진행해주세요” 이라고 그 많은 담당자들 앞에서 소개해 주셨고, 이 자리를 계기로 저는 더욱 발주처로 빙의되어 소신을 가지고 즐겁고 열정적인 현장 생활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CM의 업무라는 것이 발주처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더욱 빛이 나는 것인데요. 저는 정말 행운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Q4. 한미글로벌에 입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미글로벌(당시, 한미파슨스)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저를 이 회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에 근무할 시 대형건축물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한미글로벌(당시, 한미파슨스)과 함께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기에, 한미글로벌의 기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많았는데요.

2006년 ‘동남권 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가블럭’ 턴키 프로젝트 수행시, ‘상권활성화 보고서’를 담당하게 되며 접하게 된 MD분야는 개발사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건축설계와 개발사업을 아우르겠다는 당찬 꿈을 가지고 2007년 초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건설/개발 전공에 입학하고 나서, 더욱 한미글로벌의 “분야별 능력있는 엔지니어와 실현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제대로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2007년 12월, 한미글로벌 본사의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Q5. Before / After, 입사 전에 알고 있던 것과 그대로인 것, 다른 것은?

- 1) Before : 구성원 수, After : 구성원 수, 즉 규모가 커졌다는 점
- 2) 입사 전에 알고 있던 것과 그대로인 것: 한미글로벌의 변하지 않는 원칙과 이것에 대한 나의 믿음
- 3) 입사 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 입사 전에도 간접적으로 한미글로벌 구성원들의 훌륭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실제로 입사한 후, 직접 그들과 협업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의 역량이 빛이 날 수 있었던 “KM 제도”的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회사가 국내 CM 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할 수 있는 저력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잘 융합된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KM 제도”를 손꼽고 싶습니다.

Q6. 본인의 향후 계획 및 포부, 30년사 발간 시 본인은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글쎄요. 어렸을 때에는 10년, 20년, 30년 후의 내 모습에 대해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사회생활하기 시작하고, 점점 생업(?)에 바빠지면서부터는 먼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면, 10년 후면 제가 50세 중반의 나이가 되어 있겠네요. 제 바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 때에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은 가진 현장 엔지니어’로서 실무에 임하는 모습의 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한미글로벌의 젊은 주니어층과 가까운 선배로 자리 잡고 싶어요. 소위 나이 많은 ‘어렵고, 말이 안통하는 꼬대 상사’가 아닌 ‘편하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같은 멋진 선배’로서 그들과 자주 소통하며 젊은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07. 공채사원 Interview

공채 1기 : 곽동원 과장 / 남하나 과장

2016년 2월 16일 Happy Lounge에서 공채계의 단군이라 불릴 정도로 공채사원들의 신임을 얻으며, 주니어사원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맡은 바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곽동원 과장(이하 ‘곽’)과 남하나 과장(이하 ‘남’)을 만났다. 2007년 1월 1일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10년 동안 동거 동락한 이들은 6명의 동기들과 함께 시작하였으나 현재 2명만이 한미글로벌에서 꿈을 꾸고 있다.

Q1. 본인 및 직무 이력 소개



[곽동원 과장(좌), 남하나 과장(우)]

곽: 한미글로벌과 함께 한 9년은 현장과 본사를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CM at Risk 현장인 홈플러스 논산점을 필두로 홈플러스 잠실점, 미군 평택 하우징CM, 동자동 업무시설 CM 등 7개의 현장과 POD(프로젝트 운영팀), 공공영업팀의 소속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곳이 제일 좋다.”라고 쭉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장은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본사는 회사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장이 아닐까요?

남: 토목의 전성시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탕정산업단지를 필두로 QMS팀, SK 부산 화물차 전용휴게소 CM at Risk 현장, 사업다각화팀(CM at Risk 영업), 1~3차에 걸쳐 22.2조에 이르는 총 사업비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던 4대강 업무 기술지원용역을 마지막으로 현재 해외사업부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Q2. 공채사원 1기로 입사하여 가졌던 초심과 현재를 비교해본다면.

곽: 2007년 1월, 초심을 떠올린다면 뚜렷이 기억나진 않지만 학교와는 다른 곳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에 마냥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입사초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막연한 계획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모든 것이 새롭기만 했던 2007년에서 현재까지 첫 직장이라는 둥지안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친 것 같습니다. 사원에서 대리, 과장이 되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나날이 배가 되어 가는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할까요? 본사에서 근무하니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늘어가는 것도 달라진 점이겠지요.

Q3.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곽: 입사 첫 현장이거니와 우리 회사 최초의 CM at Risk 현장인 홈플러스 논산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

니다. 건축학 전공으로 설계를 공부하였으나 현장에서 CM과 시공을 아우르는 경력을 쌓고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남: 저도 역시 CM at Risk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SK 부산 화물차 전용휴게소 현장에서는 1년 동안 단장님과 컨테이너에서 보내면서 회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무에서 유를 만들어 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곳을 지나쳐 갈 때면 왠지 모를 성취감에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지요.

Q4. 본인만의 노하우 공유, 후배사원에게 하고 싶은 말

곽: 10년이 가까워지니 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힘들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니 참고 견디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느 현장 어느 부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다보면 어느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에 비유하듯이 조바심을 내지 말고 끈기있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2007년 1월 공채 1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공채 입사자가 7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같이 모임을 하려해도 이제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젊은 구성원들이 많아져 회사 분위기도 밝아지고 유연한 조직이 되었다는 장점만큼 선배라는 타이틀 앞에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작은 책임감도 수반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저직급을 위한 복지와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어 우리 후배사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Q5. 본인의 향후 계획 및 포부, 30년사 발간 시 본인이 무엇이 되어 있을까?

곽: 단기적 목표로 3명(아들 셋, 쌍둥이 아들 포함)의 아이 아빠가 되면서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회사원이라면 도전하기 어려웠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설렘반 걱정반입니다. 30년사 발간시라면 직장생활 20년차를 앞둔 어느 부서의 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남: 입사 후 처음 제도 설명을 들었을 때 까마득하기만 했던 안식휴가가 코앞으로 다가왔듯 또 순식간에 10년이 훌러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시간만 훌러가지 않게 노력해서 10년 뒤에는 한미글로벌 내에서는 물론 업계 내에서 실력과 경험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08. 대한민국 젊은이가 바라 본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을 통해 꿈을 그리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정요훈 (차세대 건설리더 13기)

한미글로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미글로벌은 국내 최초로 CM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선도 하며 CM 분야를 널리 알린 기업입니다. 특히,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뛰어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을 통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통해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어느 건설사와 다른 특유의 기업문화를 가진 가고 싶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전, CM이란 개념이 생소하고 전무하였을 때부터 시작하여 뛰어난 기술력, 윤리 경영, Global Standard를 바탕으로 2002 한일 월드컵의 뜨거운 추억을 만들어 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제주도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신사옥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공사뿐만 아니라 중소주택 건설시장과 리모델링 시장에 진입하여 CM분야와 그 가치를 알리고 보급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 경영과 기업 문화를 토대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게 한미글로벌은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마에스트로’와 고향에 가면 집 앞에 건설 중인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W’, 해운대 스카이라인을 대표하는 ‘아이파크’를 통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국내외 1800여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세계 50여개국에 진출하여 미국 건설 주간지 ENR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18위를 달성할 만큼 세계적인 기업 속에서도 발군의 성과를 보이는 것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업실적 외에도 저와 같은 개인에게 한미글로벌이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 한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미글로벌이 주관하는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13기로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건설관리(CM)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공정관리, 품질관리, 건설사업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장실습을 통해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건설현장에서 교육 과정동안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팀 프로젝트와 UCC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산업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임직원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장님에게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 현재의 습관으로 이어져 넓고 깊은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김종훈 회장님의 저서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를 읽으며 이러한 것이 ‘인재를 만드는 독서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한미글로벌 전사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수료하며 ‘인생비전설계’을 작성했습니다. 이 때 세운 꿈과 목표는 실제로 이어져 6개월 후의 모습을 계획한 대로 저는 건설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와 같은 수업을 들으며 건설관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의 모습을 계획한 대로 CM 관련 대학

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꿈과 목표가 생기니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고 하나씩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고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해 나름의 연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이룩해 놓은 사회로부터 뒤쳐져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을 찾지 못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된 경기 불황은 건설 산업으로 이어져 연이은 어닝 쇼크 등의 악재로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건설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은 한 때 우리나라를 일으킨 주요 산업이지만,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뒤쳐져 중심에서 차츰 밀려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저희는 스스로 친 울타리에 자신을 가둬놓고 건설 산업의 어두운 면과 한계를 짐짓 추측하며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글로벌은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법인 설립을 통한 일본으로의 진출 등을 모색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글로벌 내의 ‘구성원의 행복이 우선인 기업’, ‘윤리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등의 문화를 바탕으로 건설 산업의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역동적인 모습과 끊임없이 혁신하는 모습은 저와 같은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시각으로 건설 산업을 바라볼 수 있게 변화시키고 가능성을 열고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을 오를 생각도 하지 않고 정상을 지레 짐작하던 저의 모습에서 벗어나 정상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미글로벌의 구성원이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미글로벌이 전해준 가치 또한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인 ‘따뜻한 동행’ 또한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 사회 곳곳의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어루만져 주며, 건설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바라며 다시 한 번 한미글로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스무 걸음, 스물 한 번째 도약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4학년 김승환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수적이란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여기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업이 있다. 바로, 한미글로벌이다. 한미글로벌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이들은 CM이라는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한 분야를 도입하고, 정착 시켰다.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CM과 감리를 동일 선상에 놓곤 한다. 물론 CM과 감리는 다르다. 이런 점은 앞으로 한미글로벌이 좀 더 풀어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내가 이런 한미글로벌에 대해 접한건 바로, 1년 전이다.

건축을 공부하며 CM이란 분야를 접했고, 막연한 호기심에 국내 CM 최고 기업의 CEO와 만나고 싶었다. 얼마 후 한국장학재단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이란 기회를 통해 이 막연한 호기심은 현실이 됐다. 바로, 김종훈 회장의 멘티가 됐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멘티로서 한미글로벌에 기업문화와 경영철학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김종훈 회장의 저서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를 읽으며 지금까지 한미글로벌이 걸어 왔던 성장과 위기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중 97년 IMF 금융위기를 겪고도 기업을 운영시켜 왔던 점에서 김종훈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1년 동안 내가 살펴본 한미글로벌은 참 신기한 기업이다. 바로, 회사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최우선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글로벌의 경영철학에 나타난 비전과 미션에서도 드러난다.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을 바라보지만, 그 안엔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는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또한 미션에서 드러난 지속적인 혁신은 CM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도전 정신에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 지는 대목이었다.

한미글로벌이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점은 장재곤 부장과 황규찬 이사의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그들은 모두 질병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암 투병 당시, 한미글로벌의 모든 구성원과 김종훈 회장은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멀리서도 그들을 방문하고, 치료에 좋은 음식, 암을 이기는 생활습관, 운동방법 등을 알려주며 정신적인 지원을 했다. 또한 전 구성원이 자선바자회와 모금 운동에 참여해서 모은 지원금과 항상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금까지 아끼지 않았다. 황규찬 이사의 경우 완치 후 복직하였다. 이는 모두 김종훈 회장의 저서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에 나온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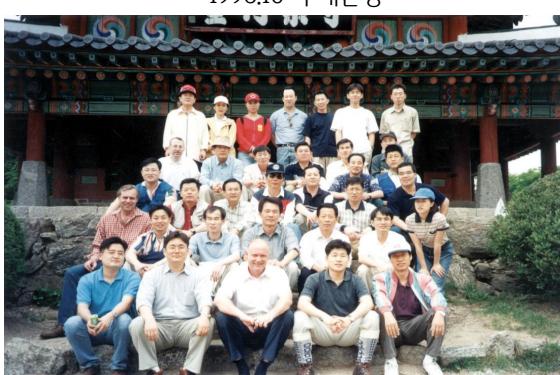
이런 단편적인 사례를 통해 이 기업이 얼마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고, 인재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핵심 가치가 있었기에 한미글로벌은 그 동안 20년간의 깊은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다. 이제 스물 한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앞서 말했듯이 한미글로벌은 건설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업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했기에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한 번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이 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건설산업엔 많은 병폐들이 존재한다. 또한 스마트 시티와 같은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런 병폐를 줄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또 다른 새로운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미글로벌이 앞장 서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유연하고 다양한 M&A는 이들의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에 유지해왔던 사회공헌 활동과 행복경영과 윤리경영을 모토로한 기업문화란 초심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런 말이 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그 꿈을 함께 꾼다면 새로운 현실이 된다” 존 레논의 연인 오노 요코가 한 말이다. 한미글로벌이 지향하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삼성역 도심공항타워 앞엔 수많은 꿈의 발자국이 짹혀 있다.

특집-3. 사진과 기사로 본 HG 20년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1996~1999)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2000~2005)-1



2001.12.04 대한민국건설경영대상 수상



2001.12.04 대한민국건설경영대상 축하파티



2002.04.17 초고층건축과 한국의 미래 세미나



2002.06.17 중국상해 대표연락사무소설립(회해중로)



2002.06.17 창립6주년기념식



2002.11.27 김종훈사장 체육포장 수상



2002.12.09 자식경영 Opening Ceremony



2003.03.13 랜드마크창립기념식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2000~2005)-2



2003.06.10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총회



2004.04.01 GWP행사



2004.07.16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2004.10.11 CM기본교육



2004.12.22 한미파스스송년회



2005.01.28 상반기정착교육



2005.06.24 삼풍10주기 건설안전 세미나



2005.12.01 경영비전선포식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2006~2010)-1



2006.01.16 임원승진자사령장수여



2006.01.20 상반기경영전략회의(코엑스 아셈홀)



2006.06.16 한미파슨스 창립10주년 기념행사



2006.06.21 창립 10주년 고객초청 기념행사



2006.06.21 창립 10주년 고객초청 기념행사



2007.11.20 워크숍



2008.11.26 고객초청음악회



2008.11.26 고객초청음악회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2006~2010)-2



2008.11.26 한미파슨스 가족음악회 헤이리북하우스



2008.12.24 ISO 14001 인증식



2009.06.23 한미파슨스상장



2009.06.23 한미파슨스상장 방명록



2009.06.24 해외근무 구성원가족초청행사



2010.03.11 따뜻한동행 설립



2010.04.12. 신고객 만족경영 선포식



2010.11.22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2011~2015)-1



2011.04.26 Otak 인수



2012.01.01 신년회



2012.01.10 에코시안 인수



2012.05.23 건설산업비전포럼 세미나



2012.07.01 월례조회



2012.08.30 피드백교육



2013.01.02 2013년 시무식



2013.11.01 프로젝트올림픽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2011~2015)-2



2014.05.31 Change & Action 워크숍



2014.07.25 전략회의 비전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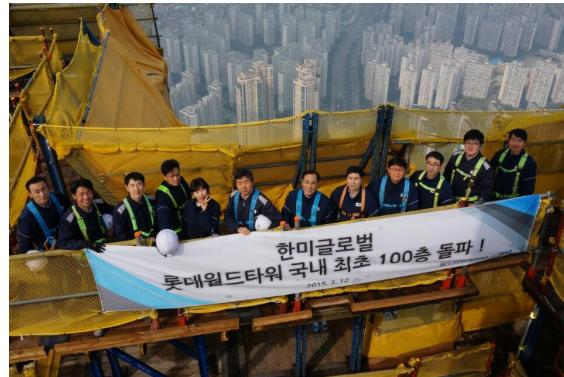
2014.09.01 아이아크 인수



2014.10.31 안전캠페인



2015.02.13 영업 목표달성 결의대회



2015.03.12. 롯데월드타워 100층 돌파!



2015.03.25 김종훈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훈



2015.06.17. 19주년 창립기념일

한미글로벌 20년 사진전(2016~)



2015.01.04 2016년 시무식



2016.01.22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2016.05.28 창립20주년 기념 도보행진

사회공헌활동-1



2002.05.25 사회공헌활동



2004.07.02 영낙원



2004.07.24 강서 도배봉사



2004.10.30 소망재활원



2006.06.17 월드컵상암경기장 견학



2009.04.24 소망재활원



2010.10.16 따뜻한동행 가을음악회



2012.05.25 명심원

사회공헌활동-2



2013.06.22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2014.04.13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2014.07.25 핸즈온 만들기



2015.01.24. 함께 하는집 연탄봉사



2015.03.30 인도체나이삼성전자VD공장



2015.06.23 사회공헌리더 역량강화



2015.05.23 마포노인복지관



2016.02.27 방이복지관

행복경영활동-1



2005.05.04 아침식사 캠페인



2005.09.28 하반기 GWP 간담회



2007.04.11 신입직원 100일식사



2007.09.13 사물놀이 자기계발



2008.10.16 외인강의



2009.03.13 명상 자기계발



2009.04.02 GWP 직원



2009.10.15 GWP 대상수상

행복경영활동-2



2013.11.01 감사데이



2013.11.08 감사교육



2015.08.03 아침인사



2015.08.25 행복경영 특강

산행 및 체육대회-1



2000.06.17 춘계체육대회



2001.10.27 가을소풍



2002.10.05 추계체육대회



2002.10.05 추계체육대회



2003.04.26 청계산춘계체육대회



2005.10.22 추계체육대회



2007.04.14 춘계등반 유명산



2007.04.14 춘계등반 유명산

산행 및 체육대회-2



2010.04.17 춘계산행 남한산성



2010.10.16 추계체육대회



2012.10.13 추계체육대회



2013.10.19 추계체육대회



2014.03.29. 춘계산행 검단산



2015.10.17 추계체육대회



2015.10.17 추계체육대회



2016.05.28 창립20주년 기념 도보행진

한미글로벌 20년사
제4부 특집

10 of 10





2009 대안민족 축제 개막식

2009년 10월 16일 출근한 일터 대상

출근이 즐거워야 사랑받는 기업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김종훈 기자 | 21세기복스 | 316쪽 | 1만5000원

'사랑받는 기업론
(論)'을 주장한 라젠드
라 시소디아 교수는 '금
요일 밤'로도 출근되며
어도 월요일엔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일본 최고의 인사
관리 컨설턴트 노구치 요시아키는 '주주부
다고객, 고객보다 종업원을 만족시키는 회
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르다. 어근을
밥 먹듯 해도 회사를 위한 공짜 서비스업으
로 여겨지기 쉽다. 일부 상사가 비리적이
며 때론 무관한 지시를 해도 참고 따라야 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다.

'출근하는 기업'이라는 개념은 전문가들이
제기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 모두 출근하는 기업으로서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들이 출근하는
기회를 확장하는 추세다.

출근하는 기업은 출근하는 기업으로서의
인식을 확장하는 추세다.

다. 회사의 중구난방 인사정책에 휘둘려 역
울한 일을 할 때도 "운이 없다"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오아시스 같은 본
보기와 되는 기업이 종합건설감리서비스업
체인 한미파슨스다. 이 회사의 경영자인 저
자는 직원들이 만족해야 기업이 최고의 성
과를 낸다고 믿고 이를 증명했다. 그는 "출
근하는 것이 즐거운 회사를 만들겠다"는 한
국에 아려운 일을 성취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책은 한미파슨스가 직원으로부터 사
람받는 기업이 되기까지의 에피소드와 자신
의 경영철학, 회사의 기업문화 등에 대해 풍
넓게 이야기한다. 신답보다 당신의 사장님
이 읽으면 좋을 책이다.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인사이트 Story 한미글로벌, 9월에 새해 달력 만드는 까닭은

한 해 먼저 준비.. '1호 캘린더' 마케팅

김종훈·회장 직접 사진 글라·비용도 절감
네센티아, 12년째 '1호 주총' 티이블

스마트폰 유행하는 시대,
증권가에서도 19 주제로 깊은
성장을 이어온다. 주총 행사 예상으로는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에서는 전시회나 전시회에서 열
어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차지했던 자리에는
금강석을 이용해 깊고 고급스
했다.

회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

제작비를 절감하는 경우다. 대

신사 측은 '주총'이라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를